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우수 대학 선정

지난해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성과 평가 최고 등급 쾌거



▶대학일자리센터

우리 대학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대학'에 선정됐다고 지난 2월 25일 밝혔다.

우리 대학은 2019년 고용노동부가 청년 진로개발과 취·창업에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에 최종 선정되어 본교와 선텔캠퍼스에 두 개의 사무소를 설치한 뒤 지원인력의 전문화, 산업체 수요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속해왔다.

작년 2020년부터는 진로·취업 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원스톱 교육지원 애플리케이션 'I'M READY'를 자체 제작해 우리 대학만의 차별화 및 전문화된 진로 및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신청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채용정보 제공, 진로취업컨설팅, 청년 정책 홍보 등을 활발히 운영하며 청년들의 취업활동에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존 대면 방식의 진로취업 컨설팅 및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및 블렌디드 방식을 적용해 실제 대면 교육과 차이 없는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분야별 전문컨설턴트 상주 ▲교내 학생취업지원처 연계 ▲교내 사업단 연계 ▲유별난 프로젝트 ▲찾아가는 진로 특강 ▲Office Impossible 취업 계획 작성으로 ▲To Be 프로젝트 ▲브랜치 미니 진로 특강 ▲1 DAY NCS 교내 캠프 ▲졸업생 토크쇼 ▲찾아가는 취업특강 ▲야! 너무 할 수 있어 ▲직무자격증 취득반 ▲pre-IPP 취업 동아리 ▲취업 동아리 ▲IPP/일학습 병행 ▲단/중/장기 현장실습 ▲자기소개서/면접 특강을 운영 및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공모전인 '야! 너무

할 수 있어'와 pre-IPP 취업 동아리, 청년 희망·청년진화강소기업 서포터즈, 자소서 경진대회 등은 참여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pre-IPP 취업 동아리는 IPP(장기현장실습) 우선 참여 기회 혜택이 있다. IPP(장기현장실습)는 학점 및 학비 지급과 실무 역량 강화, 전문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 취업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학생들에게는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우리 대학의 대학일자리센터는 공식 SNS도 함께 운영하며 학생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대학은 전국 해외 취업 2위, K-Move를 전국 4년제 대학 최다 6개 과정 선정이라는 성과를 얻었으며, 2020년도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대학'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 대학 전(前) 객준식 대학일자리센터

장은 우리 대학이 일자리센터 운영기관에 선정되었을 때 "동서대 대학일자리센터의 'I'M READY' 시스템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는 강력한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학일자리센터 'I'M READY'가 많은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고, 이는 높은 등급의 성과 평가로 이어졌다. 'I'M READY'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는 주춧돌이 되어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일자리센터장 자리를 이어받은 현(現) 송경영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센터단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인 'I'M READY' 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해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와 구직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교육의 신(新)바람

전(前) 외교대사들, 강단에 서다



▶우경하 대사 전(前) 호주대사



▶김수권 전(前) 핀란드 대사

우리 대학은 민석교양대학과 International College에 김수권 전(前) 핀란드 대사와 우경하 전(前) 주(駐) 호주대사를 2021년도 객원교수로 초빙했다.

김수권 교수는 2018년까지 32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재외공간 근무를 했다. 주요 근무 지역은 유럽과 북미지역이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및 런던대(SOAS) 연수 등을 통해 유럽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공직에서 퇴직 이후인 2019년부터는 '이투데이'에서 매월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이라는 고정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같은 해 '핀란드와 역사' 저술활동을 통해 유럽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김수권 교수는 '유럽사회와문화'와 '한반도통일과국제관계' 교과를 가르치게 된다. 이번 1학기에 개설한 '유럽사회와문화' 교과는 유럽의 사회, 역사, 철학, 문화 콘텐츠의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개발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2학기에는 '한반도통일과국제관계' 교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 교과에서는 김수권 교수의 평화 외교기획단장, 주유엔 대표부 공사,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북미3차장 등의 업무 경험을 통해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외교 전략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수권 교수는 학생들의 수업뿐만 아니라 외교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과거 해외 근무 시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한국어 개설, 핀란드 헬싱키 대학 한국어 교수직 신설, 핀란드 투르쿠 대학 한국어 과정 설치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교에서 이루어질 세계 각국 대학 및 학술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에 있어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한민국과 지역적 접근성이 낮은 유럽에 대해 갖춘 이론적 지식과 실질적 현장 경험이 높아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우경하 교수는 1986년 직업 외교관 생활을 시작으로 주(駐) 미국대사관, 주(駐) 세네갈대사관, 주(駐) 제네바대표부, 주(駐) OECD대표부, 주(駐)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을 거쳐 주(駐) 호주연방특별권대사를 역임했다. 국내에서는 청와대 대령의전 비서관, 외교부 지역통상국장, G20서울 2010정상회의 행사운영국장 등을 지냈다.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국제관계대사로 근무해 부산지역 동향에 대한 이해도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경하 교수는 경영학전공 아시아콘텐츠 세미나와 글로벌 리더십 등을 가르친다. 국제통상·경제외교 전문가인 우경하 교수가 35년간 외교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생생하게 전수함으로써 학생들은 새로운 차원의 학습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경제통상기구 협정, 협상, 국제정치적 협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을 외교에 시간을 쏟은 외교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번의 새로운 교육은 우리 대학의 역량 중의 하나인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2021 Dongseo AI 언박싱 개최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함께한 AI 특강



▶Dongseo AI 언박싱 개최 사진

우리 대학의 SW중심대학사업단이 지난 12일 '2021 Dongseo AI 언박싱'을 뉴딜 레니업권 3층 미디어 아울렛 이백스에서 개최했다.

'Dongseo AI 언박싱'은 AI(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머신러닝, AI 윤리, 뇌-컴퓨터, AI 콘텐츠 등 AI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이슈를 재미있고 쉽게 소개하는 온라인 장이다.

AI와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AI융합기술을 연구하는 'AI+X 융합연구소' 개소와 더불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장배 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 ▲황준호 EVP 스마트워킹 대표 ▲김대홍 서울예대 교수 ▲한창희 동서대학교 교수 ▲김이안 펠스나인 콘텐츠 담당 이사 ▲추병조 KT Master-PM ▲김경숙 일본 AIST박사 ▲동서대학교 AI+X 융합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AI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인공지능윤리협회 전장배 이사는 '함께

가야 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윤리'라는 주제로 AI 면접관, AI God 교회 설립 사례 소개, 자율 주행 달레마, AI 악몽 문제 (햇빛 이무다 사건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에서 필요한 윤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고, 서울예술대학교 김대홍 교수는 '머신러닝을 여행하는 예술가'를 위한 안내서'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직관적인 설명을 비롯해 AI를 활용한 예술 창작 사례와 방법들을 소개하며 예술과 접목한 AI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우리 대학 한창희 교수는 '뇌와 AI의 합체! 뇌-컴퓨터 접속 기술'이란 주제로 뇌 신호를 사용해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에 대한 소개로 식물 인간 환자 적용 사례, 사지마비 환자의 주변 환경 제어 사례, 언어장애 환자 적용 사례, 일반인을 위한 제어기술들에 대해 강의했다.

펠스나인 김이안 이사(Chief Producer



▶Dongseo AI 언박싱에 참석한 정재국 총장

AI 콘텐츠 책임자)는 '영상 제작 PD의 AI 콘텐츠 제작기'를 영상으로 소개했고 추병조 KT Master-PM은 'LSTM 신경망 기반 서버 이상 징후 감지 개발 및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특강 중간에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운영하는 'AI+X융합연구소' 연구원들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이희승 연구원의 'AI 기반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진현승 연구원의 'AI 헬스 트레이너', 유성민 연구원의 'Conv-LSTM을 이용한 사거리 교통체증 예측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3월 12일 10시부터 17까지 열린 본 행사는 AI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QR코드를 활용했다. 또한 높은 참석률을 위해 이벤트로 에어팟프로, 무선 충전 LED 시계, 문화상품권, 스타벅스 쿠폰을 경품으로 준비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 문미경 단장은 본

행사를 통해 'AI 기술과 트렌드를 스토리텔링 형태로 알기 쉽게 제공해 학생과 시민의 AI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의 SW중심대학사업단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과 부산의 문화 콘텐츠 산업 특성을 반영해 '사회와 산업'을 위한 문화콘텐츠 AI-SW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누구나 AI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단순히 코딩과 프로그래밍 문법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AI 심화트랙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교육체계를 강화시키고 대학의 특성과 전공 분야와 SW를 융합하여 SW+AI 융합인재를 양성해나가고 있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건축공학과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부산 유일 2회 연속 건축(시공)분야 최우수학과 선정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학과 선정을 기념하는 모습

우리 대학 건축공학과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건축(시공)분야 최우수학과로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08년부터 분야를 달리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주)대우건설, 롯데건설, 대한건설협회, 쌍용자동차, 영일공업, 케이엠펜(주), FM솔루션, KM엔지니어링, 한온시스템 등 국내 20개 기업의 임직원 및 대학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설계(30점)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50점)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성과(20점)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시행했다.

우리 대학 건축공학과는 고밀도 경험학습 지원을 위한 교내현장교육시스템(In-School Field System, IFS)의 도입과 해외현장 연결을 통한 해외실무자와 학생들 간 실시간 교육 및 상호작용 극대화, 산학

협력 친화적 교과목 운영, 프로젝트 기반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 실시가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해당 분야 평가가 있었던 2016년에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어 부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2회 연속 건축(시공)분야 최우수학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건축공학과 학과장 이동은 교수는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최근 연이은 취업성공 우수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평가를 발판 삼아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업무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우리 대학의 건축공학과는 2020년 한해에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건축청 등 총 4명이 전공 관련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해외 진출하는 성과도 보이는 등 매년 꾸준한 해외 취업 성과를 내며 글로벌 취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은 기자 ymacom10@gmail.com

5개의 전공에서 자체인증제 2단계 인증

과정 편성보다 개선점 환류가 더 중요



▶ 각 학과 및 학부 관계자 인증대 수여

전공교육과정 자체인증제란 학사 제도로써 전공교육과정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대학의 발전 계획을 비롯하여 진로분야에서 실제 직무를 분석해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한다. 지난해에는 26개의 전공이 1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3개의 전공이 1단계, 5개의 전공이 2단계 인증을 받았다.

올해 2단계 인증을 받은 학과는 ▲소프트웨어학과 ▲방송영상학과 ▲사회복지학전공 ▲디자인학부 ▲식품영양학과 총 5개의 전공이다. 2단계 운영 인증은 교육과정에서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며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수업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수업평가 등을 근거하여 자체 평가 보고서로 작성하고 심사를 거친다.

외부 위원 3명도 포함되어 엄격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인증을 획득한 전공에 관해서는 학과평가와 교원평가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우선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제국 총장은 "코로나 감염증으로 가속화된 고등교육의 지각변동 시대에 전공능

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점을 환류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전공교육과정 자체 인증제를 통해 이 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학과는 능동적인 학습의지를 가지며 창의융합적인 사고와 상호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 'Beyond Programmer (프로그래머, 그 이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소프트웨어 융합 등의 내용을 배운다. KSCI 2020 우수 논문상, ICCT 2020 논문 우수상, 2021년 산호세 주립대학 SVSTIP 프로그램 참가, 재학생 카카오 입사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방송영상학과는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고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영어와 컴퓨터 과목을 필수화하고 논술 및 사고능력의 배양을 기본으로 하여 방송, 영상 분야에서의 교과과정을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Be a Light!(세상을



▶ 식품영양학과 인증대

밝혀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약 23개의 각종 공모전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

사회복지학전공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찾고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2012년 4월부터 사상구 노인복지관을 수탁해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자원 활용,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복지사회를 만드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란 슬로건으로 2020년, 2021년 우수 예비사회복지사상 수상, 동서 복지정책 연구회 졸업생의 근로복지공단 입사, 해양경찰 공무원 합격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디자인학부는 인문, 사회, 공학, 디자인이 결합된 융합교육체계, 차별화된 다양성, 현장 적용성 강화, 전략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The Only One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창의인재'로 (인성), C(창의), E(전문), G(글로벌)을 조합하여 다양한 인재상에 따라 역량과 능력에 대해서 정의한다. 차별화된 루트 교육으로 ▲Back To the Ori-

gin 통합디자인 교육 ▲Professional Critic Class 디자인 전문가 참여 토론·비평 수업 ▲Nobody Behind 실기 능력별 분반 교육 ▲24Hour Open Space 24시간 개방형 루트 실습실 ▲Global Network Design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케이퍼 디자인 콘테스트, 한국상디자인학회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 공모전, 부산 텍스타일디자인대전 등 각종 공모전에서 상을 수여받았다.

식품영양학과는 학생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생명과학의 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식생활과 식품과학 분야, 영양학 분야의 최신 과학적 기초이론과 연구 방법 및 응용지식을 연구하고 배우는 학과이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식품 영양학에 대한 지식을 결집하여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식생활을 통한 인간의 건강 증진'이라는 슬로건으로 4학년 학생이 현대 그린푸드 영양사에 합격, 영양사 국가시험 94.4% 합격 등의 높은 취득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배움의 끝은 없다

성인학습자 1년간의 도전



▶ 김용장(왼), 공성영(오)

지난해 우리 대학 미래커리어대학 ICT융합공학부 신입생으로 입학한 두 학생은 수업은 물론 연구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임하여 국가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학생들도 취득하기 힘들어하는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1년 만에 취득했다.

두 학생은 평일 야간 수업과 토요일 수업을 통해서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남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그 후 목표로 삼았던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신입생치고는 많은 나이에 입학했지만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밤새 공부하고 연구에 매진했다.

공성영씨는 대한항공 군용기 사업부 사업 관리팀에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를 보다 더 전문성 있게 하고픈 마음으로 우리 대학 미래커리어대학에 입학하여 새롭게 시작한 것이다.

산업안전기사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해 안전하고 생산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만들어준다. 모든 제조업체, 안전 관리 대행업체에서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으로 활동하며 공무원 채용 시험 시 가산점이 더해지기도 한다. 필기 시험은 안전 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전기 위험 방지 기술 등의 6과목으로 '위험 방지'에 대한 기술을 기계 전기, 화학, 건설로 나뉜다. 합격률은 높지 않은 편이며 2019년 기준 필기 45.3%, 실기 47.2%이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안전 관리 유해, 위험 작업 교육기관, 안전관리 진단기관으로 취업해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관련 기관의 산업안전 기술 지원 부서로도 갈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취업 시 보수, 승진에 우대받을 수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에도 가산점을 얻는다. 2019년 기준 필기 47.3%, 실기 47.8%로 높지 않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다.

정현석 미래커리어대학 학장은 "성인학습자들의 직장 경험과 대학교육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열정에 대학에서 준비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구분	기간
필기시험 원서접수	2021.04.13.(화) ~ 2021.04.16.(금)
필기시험	2021.05.09.(일) ~ 2021.05.19.(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1.06.02.(수)
용시자격 서류제출	2021.05.17.(월) ~ 2021.06.11.(금)
실기시험 원서접수	2021.06.15.(화) ~ 2021.06.18.(금)
실기시험	2021.07.10.(토) ~ 2021.07.23.(금)
합격자 발표	2021.08.06.(금) ~ 2021.10.06.(수)

▶ 자료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고 밝혔다.

우리 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일 야간(18:50 이후)에 실시되며 주말에는 출석수업으로 진행이 된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출석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성화고재지자, 평생학습자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의 비율이 달라지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동서아너소사이어티 제10기 수료식 진행

약 3년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 수료증을 받는 모습

2020학년도 동서아너소사이어티 10기 수료식이 진행됐다. COVID-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열렸다. 장제국 총장을 비롯하여 책임교수, 교직원, 프로그램 멘버 학생들이 참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10기 수료식을 성공리에 끝냈다.

동서 아너 소사이어티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공지식과 4 Powers(▲창조적 사고의 힘 ▲의사소통의 힘 ▲사라과 봉사의 힘 ▲직무분석의 힘)을 결집한 인재를 만들고 총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받아, 사람과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자랑스러운 동서대인으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미국 소재 대학교에서 한 학기 학점인정 수업을 다녀오며 국제의 지도자와의 워크숍, 글로벌 리더십 배양,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번에 동서아너소사이어티를 수료하는 10기 기증 간담회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에 10기 수료식을 진행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너 소사이어티에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여러 학과 사람들과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독서클럽, 캐넌기 과정, 어학연수 등을 함께 경험하며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추억들을 쌓아왔습니다. 아너를 수료하고, 졸업을 하며 이제는 전처럼 자주 만나 즐겁기는 어렵겠지만 항상 소중한 관계로 남아 힘이 된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을 후배들이 가지길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아쉬움은 없나요?

학교는 수업을 들러서 가지지만 그러면서도 친구들과 밥도 먹고, 예기도 하고, 소속하지만 추억하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니 대화할 일도 거의 없고, 하루가 무기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또한 졸업식과 아너 수료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교수님과 친구들 그리고 아너 동기들을 마주 보며 축하해주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처음 아너에 들어와 아너 담당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수업 시간이 야간이라 다들 배가 고프는 시간이었고, 교수



▶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여 수료식을 진행

님의 수업을 하면서 저녁을 같이 해결하자고 해서, 저희에게 음식도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 시간마다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당시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보니 그 작은 시간, 사소한 일들이 모여 우리를 더 돈독하게,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생각이 들어 교수님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11기, 12기 그리고 곧 들어올 13기 일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들어오는 것 자체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세서로 일입니다. 아너는 위에서 끌어주는 밭 초 역할보다 한걸음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으로서 후배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발판은 각자의 노력으로 더 커질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화이팅!

수료자 대표로 참석한 아너 소사이어티 8기 양영준은 "대학 생활 중 다양한 경험을 하였지만, 동서아너소사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멘버들과 함께한 시간과 활동을 가장 뜻깊은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수료자 모두 수료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13명 이상 취득

방송영상학과 드론 활용 수업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1종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2종 업무범위 포함)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2종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3종 업무범위 포함)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3종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4종 업무범위 포함)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4종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 무인 동력비행 장치 자격 증명에 따른 업무 범위

▶ 사진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우리 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계열 방송영상학과 학생들이 촬영2 수업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수업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수업을 이끄는 박덕춘 교수의 지도 아래 13명 이상의 학생들이 드론 4종 국가시험(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을 성공리에 치러 자격증을 취득했다.

촬영2 수업은 드론을 활용한 수업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의 기초가 되는 촬영 기법을 스튜디오, 야외 촬영 실습을 통해서 제작 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캠코더, 카메라의 사용 기법, 구도 기법, 원근감 표현 기법 등의 기초적인 것부터 줌오프의 개념과 조명, 드론의 종류, 구조 및 명칭, 작동법 등을 배운다. 그 후 얻은 학생들이 직접 촬영을 통한 실습도 진행한다. 드론 비행은 스튜디오, 운동장, 편입실 등 각기 다른 장소에서 비행 실습을 진행하고 배운 내용을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 적용형 학습, PBL, 융합 수업으로 이루어진 무인동력비행 수업이다.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은 "전공수업이라 듣게될 수업이지만 계획서를 보고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수업이라 신기하기도 했고 직접 드론을 통해 영상

촬영하고 싶다는 목심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드론을 조종하는 것은 어려웠고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더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주변 환경까지 신경 쓰고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과 꼭 좋은 결과물을 내고 싶다는 의욕이 겹쳐 더욱더 공부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은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305조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어 분류한다. 무게에 따라서 1종부터 4종으로 나누어지며 사업 용이한 비사업용은 자격 증명이 개정 후 필요해졌다. ▲1종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 ▲2종 7kg 초과 25kg 이하 ▲3종 2kg 초과 7kg 이하 ▲4종 250g 초과 2kg 이하로 나누어진다. 4종은 온라인 교육 6시간으로 대체된다. 1종~3종은 과목, 범위, 난이도가 동일한 학과를 다녀야 하며 2종부터는 실기가 포함된다. 3종은 6시간, 2종은 10시간, 1종은 20시간의 비행경력이 필요하다.

이유진 기자
youjin6244@gmail.com

(주)사맛디 K-스타트업 대상 수상

우리 대학 LINC+사업단과의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성과 창출



▶ K-스타트업 대상 수상기업 '사맛디'의 임직원들 모습을 담은 스마트폰



▶ 개인 옷장 온라인 서비스 '옷톡(OTTOK)' 어플리케이션 출시

우리 대학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LINC+, 링크 플러스) 육성사업단의 유료 가족회사 ㈜사맛디가 '2021 코리아 이노베이션 어워즈'에서 AI 패션 플랫폼 부문 K-스타트업 대상을 수상했다.

사맛디(대표 이종혁)는 패션의 속성을 넘어 감성까지 인식할 수 있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기업과 고객의 패션 라이프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스타트업이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이미지로 구현된 패션 언어와 다양한 서비스로 패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스타트업이다. 2019년 창업 후 우리 대학 LINC+사업단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기업 지원 프로그램(산학공동 기술 과제, 클래스셀링®, 디자인지원 등) 참여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해오고 있다.

2019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클래스셀링® 수업(지도교수 : 김형숙·양성원)을 통해 인공지능을 패션에 접목하는 산학 교과목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클래스셀링®(Class Selling®)이란 우리 대학에서 최초로 시행한 수업방식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지도 교수와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학생들의 장학금 기부 형태인 '전문식 판매'로 기업에 판매된다. 수업의 결과물은 사맛디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로 구현되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사맛디는 지난해 우리 대학 LINC+사업단과의 산학공동연구(연구책임자 : 디자인학부 김형숙 교수)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패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0 패패부산 섬유패션전'에서 시연회를 가진 바 있다.

사맛디가 지난 1월 론칭한 '옷톡' 서비스는 2020년 2학기 클래스셀링® 및 디자인 지원으로 나온 결과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스타일리스트 서비스이다. 보유한 옷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나만의 가상 옷장이 만들어지는데, 의상을 종류별로 자동 인식해 저장한다. 아이템에 대한 패션 정보도 제공하며 전신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코드를 분석해 준다. 옷쪽 AI가 내 옷장과 비슷한 무드의 다른 유저들을 추천해서 나의 스타일을 공유하고 다른 사용자들의 옷장과 코드를 구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 지원실의 'C&D(Connect & Develop) 프로젝트'로 패션 인공지능을 오

프라인에 적용, '패션 스마트 미러'를 새로이 론칭 준비 중이다. 패션 스마트 미러는 쇼핑몰 또는 패션 브랜드 매장에 설치해 사용자의 패션을 분석하고 적합한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패션 AI 코디네이터다.

사맛디와의 산학협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대학 김형숙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시대에 맞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스타트업이 주변에 많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대학이 가진 디자인 노하우(Know-how)를 접목해 지역 산업과 역음으로써 스타트업 성장은 물론 지역 사회와 지역 산업의 발전과 상생 실현에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최은석 기자 dmstir1526@gmail.com

■ 학과별 Q&A 인터뷰 - 최은미 책임교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실버컨설팅학과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미래커리어대학의 실버컨설팅학과 책임교수 최은미입니다.

Q. 실버컨설팅학과는 이름만 듣기엔 생소한데요. 학과 소개를 해주세요.

A. 실버컨설팅학과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실무력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현재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전문가 양성에 초점 맞추고 있으나, 학과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족 외에 다양한 사회복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Q.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외 활동이 있나요?

A. 우리 학과에는 현재 재능기부 동아리인 '뚝뚝봉사대'가 맹활약 중입니다. COVID-19로 학교생활 시작과 동시에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재학생들은 힘든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역발상을 해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시대에 필수품인 마스크 스트랩을 동아리 회원들이 손수 제작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고,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자 방수성 재능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각자 가진 재능을 영상으로 찍어 클래스를 열었고,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이 또 다른 영상을 찍어 업로드하는 등 비대면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따라 하기 쉬운 장구 치기 영상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이 집에 머무르며 할 수 있는 활동 콘텐츠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자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필수적 역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데, 실버컨설팅학과만이 가진 차별성이 있나요?

A. 물론 학점은행제를 통해 단기간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취득한 자격증으로는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재교육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교수진들이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과의 교류를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최신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의 단단한 네트워크 구축은 실무를 중시하는 학생 및 실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취업 연계에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간의 네트워크도 졸업 후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교직원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성스레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학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실버컨설팅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시는 분, 이제껏 내 인생의 앞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한 번쯤은 나도 주변을 돌리려며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실버컨설팅학과가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주고, 삶의 질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임주는 수습기자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영화과 이태동 졸업생과의 인터뷰



▶ 영화과 2014년도 졸업생 이태동

우리 대학 영화과 이태동 졸업생은 BDAD(Before Dongseo After Dongseo)의 취지에 맞춰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반도', '삼진그물 영어도의 밤', '홍홍소'를 포함한 여러 영화나 드라마 현장에 들어가 촬영 제작을 하고 있다. 현재 인기몰이 중인 '홍홍소' 콘텐츠에서 촬영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태동 졸업생의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해 집중 취재하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A. 우리 학교 영화과 10학번으로 졸업한 이태동입니다. 우리 대학 영화과 대학원을 다니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화 제작이나 영화 프로듀서를 목표로 현재 '디테일 스튜디오'라는 영화 제작, 후반 작업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대학교 재학 시절,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 생활을 했나요?

A. 대학 생활 때 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문화체험이라는 교양 수업에서 A+를 받아 베를린 국제 영화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BDAD 과정 중 창업동아리 활동에서 '테크 2'라는 촬영 장비 렌탈숍을 개설하면서 학교에서 공간 임대를 지원받았고, 한동안 서퍽을 올라가서 '드론웍스'에서 특수촬영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했을 때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닿아 '홍홍소' 콘텐츠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영화제작사나 영화 프로듀서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영화과 대학원 재학 시절 뮤지컬 웹드라마 '메이킹필름'이라는 시험적인 작품을 제작했는데 여기서 겪었던 경험이 지금의 '홍홍소'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Q. 우리 학교 영화과 학생들, 이 직종을 꿈꾸는 학생들 또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해주고 싶은 말을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 때문에 유일하게 영상업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업계의 호황기를 기회라고 생각해서 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례로 우리 대학 연기와 졸업생 김대영 배우는 '홍홍소'에 이미나 역으로 활동중이고, 이번 옷차와 함께한 시즌 2(6화~15화)는 우리 학교 졸업생 스타프들이 참여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더불어 상어게인 이승윤의 영상 수집가 뮤지컬이더를 촬영했는데 여기 제작진이 우리 대학 영화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보고, 그 길을 명확하게 설정한 뒤에 취업의 문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화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취미 공고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스펙 등 외부적인 요인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의 스펙을 쌓고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저머리도 항상 하이팅!

최은석 기자 dmstir1526@gmail.com

융합적 소양이 중요한 시대 융합 방사선학과 홍준용 졸업생 수기



▶ 방사선학과 2019년도 졸업생 홍준용

올해 2월 융합 방사선학과 홍준용 졸업생은 원자력연구원 국가 RI 신약센터에 산학연구원으로 취업하게 됐다. 또한, 연구 활동과 동시에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과 박사과정으로도 진학하게 됐다. 취업과 동시에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었던 활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기소개 및 준비과정

안녕하십니까? 본교 방사선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원자력연구원 국가 RI 신약센터에서 Micro C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준용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사선사 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는 방법이 있었고 석사 재학 중에 만든 논문 실적 등을 바탕으로 연구소에서 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적성을 바탕으로 고민해 본 결과, 연구인력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근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석사 이상 수준의 대학원 생활을 통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 연구소의 기능에 부합하는 전공 지식, 그리고 해당 분야의 연구 실적(논문 출판, 학회 발표) 등입니다. 국가 RI 신약센터의 경우, 방사선 장비로 촬영하고 분석하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학부 때 받은 방사선사 면허증과 석사 때 마련한 연구 실적이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

학부 때 국가고시 시험에 응시해서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것이 초석이 되었

고, 석사 재학 중에 AI, 영상처리 프로그램 등을 공부하여 논문 쓴 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DL 구체적으로는 딥러닝(Deep Learning : DL)이라고 하는 기법은 시대 변화의 최선봉에 서 있는 기술로 자율 주행, 얼굴인식, 알 진단, 심지어는 고진 작가의 화풍으로 그림을 자동으로 그리는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 혹은 근무 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가정하에 딥러닝 기법을 공부해두시면 차별점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 또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학년 때부터 진로를 고민해보시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준비한다면 더 좋은 실적과 서류를 준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본인이 내리시라는 말도 겸양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대신 내려준 결정에는 아무런 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상투적이지만 융합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회는 많은 지식을 쌓아두고 그것에 능통한 사람을 필요로 했으나, 지금은 많은 지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즉, 수많은 정보 중 나의 직무 및 의도에 맞는 지식을 찾아 재가공할 수 있는 역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양을 갖추면 남들보다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은석 기자 dmstir1526@gmail.com

다른 이를 위해 나를 안아주기 사회복지학 전공 남수현 졸업생 수기



▶ 사회복지학과 2021년도 졸업생 남수현

사회복지학 전공 남수현 졸업생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2021년 우수 예비사회복지사 상'을 수상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남수현 졸업생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와 취업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시절 소중했던 친구가 긴 여행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전날까지 일상을 나누던 친구가 자살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고별한 뒤, 자살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살이라는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2학년 이전부터 정신건강사회복지 영역에 관심이 많았기에, 전공 수업을 듣는 것 이외에도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자원봉사 시간을 정신건강사회복지 영역에서 채우고자 했고, 연구회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듣어야 할 전공 수업과 해야 할 과제들이 무척 귀찮아지게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된 이유를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4학년을 마무리할 때쯤 두 가지 선택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련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어 1년 동안의 수련 과정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실무 현

장에 뛰어든 것인지를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시간은 갈수록 짧아졌을 겁니다. 집안의 경제 사정을 비롯해 저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을 생각해 보니 수련 과정을 밟기보다는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매마점 하늘이 도왔는지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생명존중 생명사랑 캠페인 : 허들'에 자원봉사자로 매년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정신건강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기관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도 교수님과 대학원지리센터의 도움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거쳐 면접 당일 오후 5시를 넘겨 최종 채용 합격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꼈던 성취감과 짜릿함을 느꼈고,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느낌이 교차했습니다.

취업 준비과정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취업 준비과정을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어도 괜찮고, 어떤 이유로 넘어져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의 자신에게 '잘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어'라고 말 한마디 건네주며 자신의 편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도에 대해 위로와 응원을 건네고 싶습니다. 수고했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 함께 걸어가 봅시다.

최은석 기자 dmstir1526@gmail.com

책 속의 풍경 - 페스트

페스트,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 책 제목 : 페스트
- 책 저자 : 알베르 카뮈
- 출판사 : 더스토리

학교 교양 수업에서 배운 책을 읽어 보고 싶었는데 열심히 참여는 못 했지만 독서 클럽을 통해서 책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몇 달 전에 읽고 난 책이라 어디까지 읽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다시 리외의 이야기로 빠져들었다. 카뮈의 '페스트'는 최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금 재조명되기 시작한 책이다. 나 역시 이 책을 읽으며 60년보다 더 긴 세월이 지났으나 우리 인류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비약적으로 성공했다. 다만 인간들의 부도덕적인 일상은 1947년이나 2021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나 똑같았다. 이 책은 단지 '흑사병'이라는 병균 바이러스는 오늘날 '코로나'로 비유할 수도 있고 전쟁, 폭력, 독재 등과 비유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에서 리외는 페스트로 인해 무분

별하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별하고 결국 아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어찌 됐든 그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리외를 통해 내가 교훈을 얻은 것은 과연 나 역시 오늘날 '페스트'와 같은 바이러스(균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에 대항할 용기가 있는가였다. 또한 책을 읽으며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상은 절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에 좌절, 절망했으며 결국 언젠가 '페스트'의 위험에 우리는 노출된 채 살아야 할 무기력을 느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 힘들고 밑바닥에 있는 내가 상승할 기회란 없다는 생각이 미친 듯이 드는 요즘이다. 시간이 흘러가며 그것을 허투루 쓸 수 없기에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 길이 과연 맞는 지 헷갈릴 때가 많다. 어쩌면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또한 느슨하고 도덕적 관습 따위는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오랑시 주민들이 페스트로 인해 자신이 있고 있었던 것들을 되찾았듯이, 우리 또한 느슨해진 일상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좀 더 인류가 끈근해질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

책을 보는 내내 리외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오랑시 시민들의 감정 변화들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나를 포함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리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카뮈의 말이 더욱 놀라웠다. sns를 통해 전 세계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 통계율을 봤는데 흑사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으며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들은 아직 흑사병에 한참 밑이었다. 흑사병이

유행했던 당시에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열악하며 비참했을까 싶었다.

사실 이 책의 말미로 가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놀고 마시는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 오랑시는 여전히 비참했고, 잔인했으며, 약탈해 보였다. 흑사병이 가시긴 했지만 그 누구도 페스트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우리 역시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역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따위는 없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바이러스의 재등장의 시기는 세월이 갈수록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바이러스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인류는 백신의 개발이 아닌 자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진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치료해야 한다.

철학하고 인간 삶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나로서 코로나 이후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찰을 다룬 코로나 이해 좀 더 인류가 끈근해질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

책을 보는 내내 리외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오랑시 시민들의 감정 변화들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나를 포함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리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카뮈의 말이 더욱 놀라웠다. sns를 통해 전 세계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 통계율을 봤는데 흑사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으며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들은 아직 흑사병에 한참 밑이었다. 흑사병이

이달의 영화 - 그녀



- 영화 제목 : 그녀
- 영화 감독 : 스키야크 존즈

영화 그녀는 2013년에 개봉한 미국의 SF 멜로 영화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인화된 미래의 도시에서 인격형 인공지능 체계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 영화의 감독인 스키야크 존즈는 과거 음악 선곡 센스가 뛰어난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해 영향력이 뛰어났으며, 이후 봉준호 감독이 최고의 영화로 꼽았던 <존 말코비치 되기>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그 외에도 <어둠 테이선>, <괴물들이 사는 나라> 등 다양한 영화를 연출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영화의 배경은 2025년으로, 주인공 테오도르는 다른 사람들의 낭만적인 편지를 대신 써주는 기업의 대필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훌륭한 필력으로 타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일하지 않는 편이다. 그가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다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했던 그의 아내 캐서린과 별거한 이후로 그리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AI와 빠진 사랑

우연히 보게 된 OS 운영체제 광고의 '당신에게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 주고, 알아줄 존재'라는 카피에 매료되어 구입한다. 그는 운영체제가 여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설정하고, 통성명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사만다'라고 소개한다. 이것이 그와 그녀의 첫 만남이다.

처음에는 사만다를 그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 정도로 생각하며 대화에 벅을 친다. 하지만 명랑한 모습으로 누구보다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사만다에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활기를 되찾아간다. 마침내 그는 사만다에게 속마음을 말하고 그녀와의 대화에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발전했으며 그는 사만다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한다. 어느 날 사만다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고 그 감정을 따라 하게 된다. 그리고 테오도르도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 후 이혼을 결심한 테오도르는 아내와의 이혼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만남을 가진다. 그는 아내에게 운영체제와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 고의 영화로 꼽았던 <존 말코비치 되기>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그 외에도 <어둠 테이선>, <괴물들이 사는 나라> 등 다양한 영화를 연출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영화의 배경은 2025년으로, 주인공 테오도르는 다른 사람들의 낭만적인 편지를 대신 써주는 기업의 대필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훌륭한 필력으로 타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일하지 않는 편이다. 그가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다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했던 그의 아내 캐서린과 별거한 이후로 그리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시에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대답에 충격을 받은 그는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하고 있는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641명의 다른 사람들과도 동시에 빠졌다고 말하게 된다. 사만다는 이 사실이 테오도르에 대한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낸다. 그날 이후, 사만다는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에게 덕분에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테오도르만큼 사랑한 사람은 없다고 고백하며 사라진다. 사만다를 떠나보낸 그는 전 아내에게 자신이 항상 그녀를 틀어막추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가 항상 자신의 일부로 남아있으며 그것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쓴다. 그제서야 전 아내와 헤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그는 옥상에 올라가 도시에 해가 뜨려는 순간을 바라보며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그녀는 뛰어난 영상미와 음악으로 영화를 한층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멜로 영화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룬 게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창의적인 작품이다. 감독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표현하며 현대인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묻는다. 테오도르 역을 맡은 배우의 연기력도 대단하지만, 오직 목소리라면 등장하는 사만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화에는 사만다가 떠날 때 잠시 뒷모습이 얼핏 보인 것을 제외하면, 시각적으로 인식할 만한 모습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만다를 연기한 '스칼렛 요한슨'은 목소리만으로 영화에 의로움을 표현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에 맞게 제프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으며 작품상, 음악상, 주제가상, 미술상의 후보자에 올랐다.

가만히 있다 소환당한 너, 알고리즘

새로운 미디어 문화 "밈"



▶ 가수 비의 '강' 뮤직비디오 장면



▶ '무야호'를 패러디한 사진

각국에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1분에 600개 이상의 동영상 업로드된다. 이용자들은 각각각색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플랫폼 안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동영상을 시청한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한 영상이 큰 유행을 만들 때가 있는데, 이는 '밈 현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온라인 세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일컫는 '밈 현상'은 누군가의 특정 동영상을 큰 화제를 불러 제비를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래 밈은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 출판한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사용된 학술 용어로,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시스(mimesis)와 유전자(gene)의 합성어다.

이 책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밈을 '인간의 유전자처럼 자기복제적 특성을 지니며 번식해 대를 이어서 전해져 오는 사상이나 종교, 이념 같은 정신적 사유'로 정의했다. 즉, 밈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口傳)을 통해 재생산되는 모든 문화적 현상을 총칭한다. 이처럼 고전 사회학 용어로 쓰였던 밈은 온라인상의 새로운 소통 방식의 용어로 부활하면서 유튜브 계의 새로운 문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때 밈이 형성되는 일정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데,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갑자기 소환되기도 하며 아무도

검색하지 않은 영상이 추천 영상에 올라와 많은 조회 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전 세계의 어깨를 뒤편 춤, 관짝 댄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른바 '관짝 댄스'가 밈 열풍의 주역이 됐던 사례가 있다. 'Coffin Dance'라고 불리는 이 의식은 춤을 추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데, 좋은 기분으로 가라는 의미를 담아 음악을 틀고 관을 어깨에 짊어질 때 춤을 춘다. 이러한 '관짝 댄스'는 아프리카 가나의 독특한 장례 문화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장례식이라는 슬픔과 엄숙한 상황에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이 장례식은 곧바로 국내외의 수많은 커뮤니티 유저들에 의해 다양한 맥락으로 패러디되기 시작했다. 웃음을 야기하기 위해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 사고, 짧은 영상을 가져와 EDM을 추가하여 밈 문화를 만들어냈다. 또한 네티즌들은 관을 들고 있는 7명의 청년들에게 '관짝 소년단'이라는 애칭을 붙여주며 패러디하는 영상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가수 비의 흑역사, 1일 1강

네티즌에 의해 강제 소환된 스타들 중 가장 밈 문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준 예는 '1일 1강'의 주인공인 비다. 2017년 발매한 비의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강'이 유튜브 안에서 역주행하면서 대중들에 의해 '강제 소환'됐다.

본래 '강'이라는 노래는 발매 당시엔 기나 화제성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후 한 여고생이 유튜브에 강 커버댄스를 올리면서 대중들로부터 밈 유행을 일으키게 됐다. 비를 연상케 하는 여고생의 커버댄스는 '강'의 뮤직비디오와 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폭발적인 댓글이 달렸고, 큰 유행을 만들었다. 네티즌들의 큰 주목을 받으면서 각종 패러디뿐만 아니라 '1일 1강', '강지순리' 등 독특한 별명을 붙이며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

각종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강 따라 하기' 밈은 이혼리, 유재석과 함께 그룹 '박스락'을 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강'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비는 '강' 이름이 들어가는 CF 모델까지 발탁되며 밈 문화를 활용한 프로모션 기획으로도 활용했다.

MBTI 성격유형 검사

밈 문화는 유튜브를 제외하고 변화한 환경에 따라서도 형성됐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실외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성격유형검사인 MBTI 검사가 또 다른 역주행을 일으켰다.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분석한 MBTI 성격유형 검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MBTI 검사를 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다.

축제·공연 소식



서헤리 피아노 독주회

- 기간 : 2021. 4. 11. (일)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최 : 서헤리



소프라노 김시윤 귀국독창회

- 기간 : 2021. 4. 17. (토)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최 : 아트매니지먼트 이랑



BSCC 인문학 콘서트 : 향연 - 어디서 살 것인가?

- 기간 : 2021. 4. 30.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



NT-Live <워 호스>

- 기간 : 2021. 4. 24. (토)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a point of CONTACT'

- 기간 : ~2021. 4. 11. (일)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공장 I"

- 기간 : 2021. 4. 16.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주최 : 부산광역시



포르테 디 콰트로 언플러그드 콘서트 : 더 클래식

- 기간 : 2021. 4. 17. (토)
- 장소 :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월드쇼마켓

자료출처 : SK 하이닉스 카페
조은빛 기자
dmsqlc111@gmail.com

추모하고 기억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



▶ 학생과 시민으로 이루어진 시위대의 모습

▷ 사진출처 - 천지일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전민족 운동으로 확산될 때, 독립정신을 집약하여 우리 민족이 주권국민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했다.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인 1919년 4월 11일을 말한다. 이날은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 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의 배경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배경은 '1919년 3·1운동'이다. 3·1 운동은 한국의 독립을 국내외로, 계층 구별 없이 남녀노소 모두 전국적인 참여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이다. 3·1 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나

자, 이것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갈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게 됐다. 1919년 4월 10일 같은 날 전국 각 도의 지역구의원 29명을 선발해 회의 끝에 임시정부위원을 창설했다. 이후 4월 11일에 이등년 을 의장, 손정도를 부의장으로 임시의정원 제1차 회의가 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국민주권과 삼권 분립에 입각하여 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 헌법을 논의하게 되면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의 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고 해외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여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

국내의 동포를 모두 관할하기 위한 기구로 연락기관인 교통국을 두고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하였으며 국외에 거주



▶ '입헌 기념식'에 참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의 모습

▷ 사진출처 - [아주경제]

에 알렸다.

4·19 혁명의 배경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에는 민주적 가치와 실행에 대한 믿음이 한국 사회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실제 행동이 더욱 비민주적으로 되어가고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자행됨에 따라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규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게 됐다. 이와 같은 국민 의식의 민주화는 대체로 광범위한 민주적 교육과 6·25 전쟁 후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다. 비교적 유동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새로이 얻은 민주적 가치를 확인하는 가장 쉽고 뚜렷한 유일의 방법은 비민주적으로 행동하는 여당과 그 후보자들을 대해서 반대투표를 하는 것이었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표를 던지는 것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李承晩)은 나라 전체로 볼 때 56%의 지지를 받았으나 서울에서는 38%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도시지역에서 자유당의 약세는 대도시에서 부정선거를 비교적 쉽게 저지를 수가

없었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1950년대 초반기 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이승만의 인기를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줄 수가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국민들 사이에 이승만의 개인적 인기는 사라졌고, 그의 권력은 오로지 경찰의 강제력에 의하여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됐다.

4·19 혁명의 의의

민주주의의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정부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았다. 가난한 국민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를 더 이상 국민이 참지 못하고 한 달 넘게 전국적인 시위를 벌여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다. 이 때문에 4·19 혁명은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교체한 시민 혁명으로 불린다.

4·19 혁명의 과정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하였다. 그러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됐는데, 자유당은 반공개 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부정선거를 동원한 이승만과 이기붕이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같은 날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공산당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다. 4월 11일 김주열 최루탄 사건으로 분노한 시민들은 책임자 처벌과 부정 선거 무효 등을 주장하는 2차 시위를 벌였다. 이후 4월 18일 고려대학교의 3천여 명의 학생들은 <진정된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하여 불화를 높이 들자>는 선언문을 낭독,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학교로 돌아가던 중 청년들의 습격을 받았고, 이에 분노한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다음 날인 4월 19일

전국의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일제히 거리로 나섰다. 서울에서는 학생들이 '이승만 하야와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 나왔다.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고, 경찰은 시위에 무차별 발포를 하여,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 정권은 총칼을 앞세운 무력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였다. 그리고 4월 25일 이승만 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서울 시내 각 대학교수단 300여 명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생, 시민들과 시위에 동참하였다. 여기에 4월 28일 전야에 이어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군중들은 정권의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했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과 4·19 혁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과 4·19 혁명은 국민들이 독자적으로 주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일제하의 탄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 위한 민주주의로의 중요한 결실이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 또한 4·19 혁명 역시 불공정한 투표로 독재를 하려는 이승만 정권을 물러내기 위해 용감하게 시위하고 희생된 많은 국민들로 인해 정당하게 국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로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날 모두 민주주의로의 발전에 이바지한 날로서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코로나19라는 시련에 우울해하고 힘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괴물에 지지 않고 용감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블로그 수월광교박물관
임주는 수습기자

미래를 위해 지키고 행해가라

우리가 해야할 노력들



▶ 지구의 날

▷ 사진출처-시상상식사전

산업혁명 이후 자원의 개발과 사용으로 다양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은,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환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환경의 심각성을 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적인 기념일인 '지구의 날'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림을 만든 식목일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의 날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2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Earth Day)'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이다.

이는 1970년 4월 22일 미국 위스콘신 주의 게이 로드 벨스 상원 의원이 앞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서 발

생한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을 주창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발원 과정

지구의 날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EPA가 창설되고 Clean Air Act, Clean Water Act 등 환경생태계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Green Peace가 창설되는 등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은 세계를 움직였고 1972년에 113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보전활동에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이다. 이후 UNEP(유엔 환경 계획)가 창설되었고 세계 각국이 환경생태계 보전에 나설 것을



▶ 식목일

▷ 사진출처-플래닛피커스(네이버 블로그)

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경제성장에 밀려 환경오염은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되었고 20년 동안 '지구의 날'과 같이 환경 위기를 알리고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행사가 성행하지 못했다.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여한 계기는 당시 하버드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첫 행사를 열었던 것부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의 인구 10%에 해당하는 2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해 연설을 듣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을 했다. 특히, 뉴욕 5번가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환경 집회에 참여하는 등 환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1970 지구의 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조직된 시위였고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이후 1990년에는 지구의 날 20주년을 맞이해 세계적인 환경운동 캠페인으로 승화되었고 지구의 날은 세계적 규모의 시민운동으로 확산됐다. '1990년 지구의 날' 행사는 'Earth Day 1990' 미국 본부가 중심이 돼 전 세계 140여 개국 수 천 개의 도시에서 2억 명이 참여했다. '지구적 생각, 지역에서 행동'한다는 차원에서 각국 각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지구의 날을 위한 조직이 결성돼 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20주년 이후,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순수 민간 차원의 국제적인 기념일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특히 2000년 지구의 날의 경우, 180여 개국 수천 개의 도시에서 4~5억 명의 지구의 날 이벤트에 참가할 정도로 발전했다.

식목일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식목 관련 사업은 국가에 의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식목일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 국가기념일이다.

식목일 제정 과정

식목일은 4월 5일로 정한 것은 24절기의 하나인 청명(淸明)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날이자(676년 음력 2월 25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5일), 조선 성종이 세자와 문무백관들과 함께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구 날(1343년 음력 3월 10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5일)이 바로 이날이기 때문이다. 한편, 4월 5일이 식목일이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10년 4월 5일 순종이 친 경제(親耕祭)를 거행할 때, 손수 밭을 갈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

해방 무렵 한반도의 산림 면적은 1,627만 헥타르, 축적(蓄積)은 2억 1,200만 입방미터였다. 1910년 비교한다면 일제강점기에 무려 9억 입방미터의 축적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이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들이 취사와 난방을 해결하기 위해, 또 쌀과 일용품을 구하기 위해 산림을 마구 벌채했다.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몰타 공금이 부족 한 군의 연료 공급이나 후생사업을 위해서도 산림을 벌채했고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나무를 벌채하여 한반도의 산림파괴는 절정에 달하게 됐다.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UN의 원조로 벌인 재건사업을 했다. 하지만 적지(適地) 선정이 잘못되거나 올바른 식목 방법을 잘 몰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게다가 민간의 벌목이 계속돼 산림은 계속 황폐해졌다.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는 산림녹화를 위해 1973년부터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실시했고, 온 국민이 목욕을 길러서 심어 가꾸도록 하고 봄에는 국민 식수 기간을 정해 모든 국민이 식수에 참여하게 했다. 또한 가을에는 '육림의 날' 행사를 통해 산림을 사후관리하도록 했다. 그 후 제2차 치산녹화에서는 각 마을별로 속성수(速成樹) 조림에서 경제림 조림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해 치산녹화 계획은 1차 2차 모두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제1, 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기간 동안 212만 8천 헥타르의 인공조림, 2만 8천 헥타르의 연로림, 2만 6천 가구의 화전민 이주·정착과 8만 6천 헥타르의 화전지 정리, 12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지-해안 사방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과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지구를 위해 행동하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조금씩 지구를 위해 행동한다면 거창한 일이 된다. 잠깐의 소등, 불필요한 쓰레기 줄이기, 식물 식기, 텀블러 챙겨 다니기,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양치할 때 물컵 사용하기 등 너무나 간단해서 도용조차 될까 싶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4월은 일회용품이 아닌 개인 용기로 물건을 이용하는 '지구의 날 SNS 챌린지'와 '사전에야제 나무 심기', '묘목 나눠주기' 등 많은 친환경적인 캠페인이 진행된다.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고 맑은 하늘을 보고 싶다면 4월에 진행되는 많은 친환경 캠페인 중 하나라도 동참을 해보길 바란다.

자료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김정은 기자
ymacom10@gmail.com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대해

강수연 (영화과·2)

동서대학교 학생들은 비대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필자가 들은 작년 강의에서 교수님은 강의실 없는 대학이 도래했다고 좋아하셨다. 맞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몇 년이나 앞섰다고 한다. 코로나 감염병이 페스트의 대자비라고 하지만 코로나 감염병은 4차 혁명과 맞물려 그야말로 '혁신'이다. 접촉을 하지 않으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가히 7세기 전 페스트 때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등하교 시간이 없어졌으며 타지역에서 사는 학생들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은 다시 보기가 가능해서 복습이 용이하다. 등하교 시간 동안 과제를 더 허거나 밥을 먹을 시간이 생겼고 비대면을 대면으로 바꿀 의의가 있는지 투표할 땐 많은 이가 감염 예방 외의 이유로 비대면을 택했다. '대체 방편'이었던 비대면 수업이 그 자체로서 장점을 지녔다고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모든 게 가능하지는 못했다. 화상 수업으로 흡을 가르치거나 체육을 시킬 수는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생들에게 연습실에서 화상 강의를 킬 것을 고지하고 화상 강의로 흡을 가르치겠다는 말씀에 적잖이 당황한 학생들이 있었다. 또 인터넷 연결 상태로 헤프닝이 발생한 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다. 화상 강의를 할 때 수업 중이었던 교수님의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서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차가 막혀서 지각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지각하게 되

는 것이다. 비대면 수업으로 가장 당황스러웠던 일은, 바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됐던 시점이 아니었을까? 신입생은 기대했던 학교생활이 아니어서 재학생은 실습을 하지 못해서, 교수님은 이제껏 가르치던 방법과 다르게 진행해야 해서 모두가 힘들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동기와 만나지 못했던 20학번은 2학년이 되고 안타깝게도 21학번이 20학번의 신입생 시절 모습을 띄었다. 대신 21학번은 입학식을 했고 졸업작품 상영회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필자는 비대면 수업이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되어도 하나의 수업방식으로 남아있기를 기원한다. 앞서 말했듯 비대면 수업은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염 예방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발전한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에도 적용된다면 큰 기여가 아니겠나. 기존에 대면 수업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비대면 수업이 보완할 수 있다면 비대면 수업은 존재할 이유가 든든해지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병 전 모든 수업이 대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학생들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다음 수업을 위해서 건물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었고 대학교 수업 특성상 수업이 없는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기 적당하지 못했다는 게 있다. 집이 멀면 집에 가서 쉬지 못하고 지리상 한정된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불편하게 여겼다. 과거에 이따금 온라인 수업이라는 강의가 열리기도 했는데 그 강의의 수강신청이 치열했던 점을 살펴봐도 학생들이 온

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열렬하다는 의사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현재 학교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감염병에 의한 여파로 기존 방식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탈피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변화가 생기면 잔물결이 이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잔물결이라고 생각하자. 변화는 부른 건 코로나 감염병으로 사회 분위기가 움직였을 수 있지만 변화는 언제나 환기가 되어준다. 선배들이 즐긴 경험을 해보지 못한 20학번과 21학번은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의미로 기억에 남는 신입생 시절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우들과 대학에 합격한 21학번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학교생활의 원인은 불가항력이지만 학교생활로 얻을 수 있는 건 당신들에게 달려있다. 방학을 그리워하지만 목표를 놓칠 수 없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 학기도 구체적인 계획을 품고 사는 학우가, 쉬었다 가려는 학우가, 군대를 가야 하는 학우가 함께 봄비는 학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 봄 학기는 새로운 연도에 새로운 학기가 겹쳐져 가을학기나 다른 향내를 내곤 한다. 신입생을 반기고 새 학년이 되어서 적응해나간다. 나이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가을학기 준비를 봄 학기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반이던 학생들은 졸업에 준비한다. 모든 분들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본인의 삶에 혁신이 있을지 바란다.

죽비소리

홀로 그리고 스스로

임규리 (광고홍보·1)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대부분 그렇다시피 나 또한 많은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입학하였다. 나는 드디어 질리도록 이어왔던 고복을 벗어던지며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후, '아 이제 지긋지긋한 급식도 탈출이구나' 하 드디어 아침에 힘들게 등교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등 많은 생각이 나를 해방감에 들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드디어 맞이한 '성인'과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내게 정말 어른이 되었다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더욱 신이 났다. '성인'이니까, '대학생'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줄만 알았다.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하던 꿈에 그려온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할 생각에 너무 신이 났다. 한마디로 나는 대학교에 대한 환상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방감과 설렘도 잠시, 대학에 입학한 후에 처음 강의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때가 온 거구나' 우리는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항상 담임 선생님이 계셨다.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연락이 오고 지각을 하면 항상 연락이 오며 나를 등고시키기 위해 많은 설득과 노력을 해 주셨다. 하지만 대학교는 그렇지 않다. 수업에 늦어도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교수님은 내가 강의실에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신경을 쓰시지 않는다. 또한 이 강의를 들으려고 강요적으로 말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홀로 그리고 스스로 해야 한다. 스스로 듣고 싶은 강의를 신

중해야 하며, 오로지 나의 의지로 학교에 나가 강의를 들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때는 나의 진로를 상담해 주던 담임 선생님이 계셨지만 대학교는 그렇지 않다. 내가 무얼 하고 싶은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배울 것이며 무엇을 해 나갈 것인지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가 정말 내 눈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나의 길을 나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 누구도 나의 길을 대신 걸어줄 사람은 없다. 한마디로 정말 홀로 서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부모님의 그늘막 아래서 지금까지 커왔던 나는 처음으로 그늘이 없어서 햇빛을 받는다. 그때 신난 것도 잠시 그 햇빛이 너무나 뜨겁게 느껴졌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따스함을 즐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무서움과 외로움에 휩싸여 있을 수 없는 법이라 생각했다. 사막에 갇혀있는 나를 꺼내어 보고자 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으려 하는 것" 언제까지 혼자 지낼 수는 없다. 요즘 같은 사회적 구조에서는 혼자 지내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먼저 다가가는 법과 다가오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보기로 했다. 아무런 그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준다 한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으며 언제까지 먼저 다가와 달라고 기다릴 수도 없는 법이다. 다음은 홀로 서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이전 나도 법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나이가 되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내 행동에 대한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나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성을 기울 필요가 있다. 난 정말 지금 우리의 시기가 딱 홀로 그리고 스스로 행동을,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대인 관계를 쌓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혼자 지내라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 그리고 스스로 대학 생활과 성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홀로 서야 할 시기라고 말을 했을 때 "빠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정말 홀로 타지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홀로 서야 할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부모님에게 의지를 할 수 없는 법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 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부모님은 환경 생 나의 옆에 있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대학을 다니며 홀로 그리고 스스로 이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홀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홀로 그리고 스스로 성장해 가는 대학 생활이 너무 외롭고 힘들지는 않길 바라며, 오히려 인생의 자양분이 되기를.

이달의 명언

자아는 이미 망둥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계속해서 망둥어 나가는 것이다. - 존 듀이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 생략키 페리

사설

우리로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학교 폭력(이하 학폭)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 올랐다. 사실 학폭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꾸준히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다. 몇 달 전 유명 배구 선수의 학폭 논란이 발화점이 되면서 스포츠 종목을 넘어 연예계까지 학폭은 사회 전반적인 큰 문제로 확대됐다. 스포츠와 연예계, 이른바 학폭미투 파문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학폭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10년 뒤, 20년 뒤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학폭 가해자의 대응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여러 가지 사건을 두고 봤을 때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날 때 비로소 사과를 하고 활동을 중단하거나 자숙의 기간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의혹을 부인하고 반대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주장하며 더 나아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학폭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피해자는 이 트라우마를 손끝에 박힌 가시처럼 평생 자신을 찌르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와 달리 잠재 가해자는 시간이 지난 뒤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피해자는 그런 가해자의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심장이 터질듯한 고통을 받는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명성 있는 스타로 거듭되어 미디어를 통해 잠든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마주한다면 그 고통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기억이 지남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미디어를 접할 때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곤 한다.

학폭 가해자가 논란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따라 그들이 받는 벌은 자발적인 '자숙'과 '탈퇴'뿐이다.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벼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타 범죄 공소시효와는 상대적으로 짧은 학교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때문이다. 비교적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피해자들은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그들의 자숙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뿐이다. 반면 이와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를 사칭해 어떤 이들은 이 논란의 틈을 타 사실을 왜곡한다. 한 스타에 대해 악의를 갖고 거짓 사실을 진실처럼 지어내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 난 작은 쌍방 다툼이었던 사건들이 세월의 흐름을 이용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폭로를 한다.

사실 무관한 사건에 대해 근거 없이 해당 의혹을 받게 된 스타들은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논란의 여파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와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모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뉴미디어 시대를 영위하는 우리들은 미디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한다. 폭로한 사실 그대로 죄를 지은 가해자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억울하게 폭로에 휘말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가해자로 내몰린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거짓 폭로를 한 가해자뿐만이 아니다. 근거 없는 사실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여론에 휩쓸리는 우리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학폭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미디어를 통해 다양하게 접하는 우리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한 사건에 대해 "그렇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로 넘겨 짚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다방면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학폭은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논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경험은 없는지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 또한 성인으로서 비교적 학폭에 노출이 잘 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모습과 여러 가지 조언들을 전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고 사건을 바라보며 추가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미디어 의식을 단련시켜야 한다.

네 컷 만화

AI세상



정신 차려보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AI라는 주제가 맞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는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 미래에는 모두 꽃길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칼럼



김대영 교목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알아간다. 삶은 인간의 숙명이다. 처음에는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알아간다. 그리고 학교를 가면 어느 선생님을 알게 되고 또 친구를 만난다. 이것은 필연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가?"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산다. 아니 영향을 주고받는다. 영향은 마치 물처럼 흘러가고 흘러들어온다. 영향력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며 있고 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있고 지내

관계

던 어머니나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다. 아마도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부모를 통해 받은 그 깊고 큰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분명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평가 모르게 깊고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영향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그 크기나 정도'이다. 그것을 인간관계로 확장해 보면 이런 의미일 것이다. "혼자라면 안 할 것은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 "혼자 가면 안 갈 길을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것"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새겨진 삶의 발자취, 누군가 닮고 싶은 마음, 나도 모르게 그 같았던 길과 비슷하게 걷는 것이다. 요즘은 자주 '배울 스승이 없다. 우리는 절단된 AI 시대와 지식 정보사회 속에서 무한대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정작 마음을 다해 배우고 따르고 싶은 관계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비평과 비판은 난무하지만 이 땅에서 '나를 닮고 싶어'고 한다든가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조차도 '너, 나 좀 닮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인간은 남노소, 지위 고하를 막

놓고 누구나 자신만의 어두운 그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기소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현수소임을 적나라하게 밝힌다. 그러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관계는 상호작용인데 우리는 세상을 자신의 사고의 틀에 맞추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늘 자기 식으로 이것만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고집하는 작각,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올해 우리 대학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출발하였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의 주제와 동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진리 창조 봉사의 기독교정신으로 무장한 동서인들이 이 관계 부재의 시대에 건강한 소통자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 동서대학교 제29대 총학생회 인터뷰 - 김흥규 총학생회장

여러분들의 바람을 변화의 바람으로!

변화에 앞장서는 총학생회 '바람'



▶ 제29대 총학생회장단



▶ 바람 총학생회 매킨뚜



▶ 제29대 총학생회장단

지난달 이루어진 제29대 총학생회 선거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처음으로 온라인 비대면 선거로 진행되었다. 이번 인터뷰는 새로운 제29대 총학생회를 대표해 지난해 코로나19 아쉬웠던 학우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변화를 위해 앞장서고자 하는 '바람' 총학생회 김흥규 회장을 동서대학교 신문사가 만나보았다.

- Q. 안녕하세요.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 총학생회 회장 15학번 김흥규라고 합니다!
- Q. 학생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가요?**
A. 학생회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을 다니는 동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학교 본부와 의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단체입니다.
- Q. 제29대 총학생회 구성원과 각 국장들의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그 외에 밑에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행사

나 학교 회의가 있을 때 모든 국장님들이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교행사기간 외에 평소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학생분들이 내신 학생회비에 대한 회계 내역을 검토하고 담당합니다. 연대사업국장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제휴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제휴업체와 미팅과 협약을 맺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획 국장은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 및 구성하며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국장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칙과 회칙을 수렴하고 검토한 뒤 추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외협력국장은 외국인 유학생분들과 교환 학생분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문화교류국장은 문화 분야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와 미팅과 협약을 맺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IT 국장은 학교 사무실 내 기자재 관리와 학교 내 와이파이 관리 및 정보 통신 센터와 교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홍보국장은 총학생회 활동 및 제휴 혜택들을 SNS 및 단톡방 공지는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육정책 국장은 장학금에 대한 혜택과 내용들을 정리하고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위한 다양한 장학혜택을 장학 과와 협의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회봉사국장은 사랑의 김치 나눔, 도시락 배달(독거노인 자원봉사)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담당하며 농촌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Q. 작년 제28대 총학생회에서 정책국장을 맡으셨는데요. 이번 총학에 출마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A. 작년에 총학생회에서 정책국장을 맡으면서 학생들의 여러 의견을 듣는 것도 좋았고 여러 사람들과 추억을 쌓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 아쉬운 점들을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됐나요?
A.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하였을 때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견해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책국장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다양한 생각들과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Q. 반면에 힘들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언제가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시기였나요?
A. 저희가 작년에 E-sports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예선전을 치르고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져서 E-sports 대회가 잠정 연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던 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가 되었을 때 가장 아쉽고 허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들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드려야 하는데 못 안겨드렸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Q. 이번 선거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는데요. 혹시 진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또는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A. 모든 학생분들이 온라인 투표가 처음이라 투표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했다는 점과 투표를 학생지원 시스템으로 하였던 학생지원시스템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접속이 되어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브라우저로는 투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있으므로 오히려 PC로만 투표한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볼 수 못한 점이 가장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었습니다.

Q. 선거 공약 중에서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필요할 공약이다'라고 생각해 특별히 강조하신 공약이 있으신가요?
A. 저는 공약 중 '학생지원 시스템과 수강신청 시스템 개선'을 가장 강조하였습니다.

학생지원 시스템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접속이 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점, 현재 수강신청 시스템은 강의별로 검색을 하여 강의 시간표를 확인한 후 시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을 찾으려면 원하는 시간이 정렬되어 나오는 시스템을 추가하여 보다 편리하게 학생들이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분들이 비대면으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것이 온라인과 모바일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어 불만만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다른 개선점들이 보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공약이 있나요?
A.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생지원시스템과 수강신청시스템 개선입니다.

Q.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코로나로 인해 한 분 한 분 찾아볼 수 못하고 소개하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문제점에서 저희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찾아가고 받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대학이라는 곳이 정말 많은 기회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학 생활보다는 기회를 잡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 앞으로 함께할 제29대 총학생회 임원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국장 지원을 신청하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제29대 바람

총학생회는 최대한 많은 학생의 의견들을 듣고 개선할 것이며,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많이 쌓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올해 잘 부탁드리며 학생들의 조금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간단한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당선이 되었지만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희를 믿고 뽑아 주신 만큼, 저희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총학생회라는 단체는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것이며 학생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더 다가가는 그런 제29대 바람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학 학생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제29대 총학생회와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29대 총학생회가 잘 했던 부분은 그대로 이어받고 부족했던 부분은 더욱 보완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루도록 제29대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그들의 슬로건 '여러분들의 바람을 변화의 바람으로'처럼 더욱 편한 학교생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되길 우리 대학 신문사가 응원합니다.

조수연 수습기자

성경 속 인물 - 아론



▶ 아론의 썩은 지팡이 ▶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열두 가지 보석의 사나이
아론은 4형제 맏아들로 B.C. 1547년에 출생했다. 83세에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 동생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 모세와 같이

애굽 왕 바로에게 10여 차례를 왕래하여 10재앙을 내리게 함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출 7:10, 20, 8:8, 25, 9:10, 27, 10:3, 6, 12:31).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후 여호와가 글 세워 제사장을 삼았으니 곧 이스라엘의 제대 제사장인 그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삼았다(레 8:12-13). 그러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하지 않으므로 여호와 진노하시니 죽사하고 그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었다(레 10:1-7). 출애굽기 4장 10-14절 아론은 고상하다는 뜻이다. 모세의 형제요 아르람과 요게벳의 장자요 모세의 형이요.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 등 네 아들이 있었다. 아론은 도량이 넓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 자기 개인보다 공적인 사역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꾼이었다. 또한 합리적이고 실력력 있게 말을 잘하므로 모세의 대변자이기도 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출 사역에 모세만큼이나 공헌한 사람이다.

이집트의 왕(파라오, 바로)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전하고, 모세를 도와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집트)으로부터 탈출시킨다. 광야생활 가운데 시나이산에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예배를 드리게 허용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최초의 대제사가 되게 하였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점에서 아론과 공통점이 있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아론보다 탁월한 분이다.

아론은 성막 곧 신성한 예베소의 책임을 맡았고, 사람들의 속죄를 위하여 아나남에게 희생 제물을 드려, 그를 죄의 용서를 빌었다. 그는 지상의 낙원으로 여기고 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었는데, 아들 엘르아살이 그의 뒤를 이어 대제사가 되었다. 아론의 자손을 레위족 속이라 하는데, 그들은 대대로 사제직을 맡았다.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레 6:20-22). 레위 지파 출신으로, 아르람과 요게벳의 맏아들이며, 모세의 형이요 누이(출 6:23; 역대상 2:10) 엘리세바(엘리사벳)와 결혼하여 네 아들(나답·아비후·엘르아살·이

다말)을 낳았다.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요(출 9:8; 레 10:8),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는 사명을 받은 자이고(출 16:13, 26-27; 시 77:20).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첫 대제사장이었다. (출 31:13; 35:19; 민 18:28). 그는 40년 동안 도망자로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소개했고, 모세를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로 영접하게 하였다(출 4:27-31). 아론은 모세와 함께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각종 이적을 통해 바로를 굴복시킨 후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했다(출 7:10-19; 8:5, 16; 10:9). 출애굽 후 광야에서도 모세를 도왔는데, 특히 시내 광야에 이르러는 길에서 벌어진 아벨레과의 전투에서 아론은 홀로 함께 모세의 손을 받쳐 올림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출 17:9-13). 성막이 설치되자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고, 세속적인 제사장직의 장(head)이 되었다. 따라서 제사장을 가리켜 '아론의

자손'(역대하 13:10), '아론의 집'(역대상 12:27), '아론의 반장을 따르는 자'(히 7:11)라 불렀다.

아론은 성격이 유유부단했고, 질투심도 강했다. 그와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민족 구스(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하자 모세를 비난하며, 모세만 하나님의 유일한 대변자가 아니라고 불평했다(민 12:1-2). 또한 모세가 율법을 받고자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모세를 위해 부응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으로 환락과 방탕에 빠지게 했다(출 32:1-6). 이를 꾸짖는 모세에게 아론은 변명으로서 일관하는 소심함을 보였다(출 32:24).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즈음 아론은 죽음을 통보받고 모세와 함께 호르 산에 올라가 제사장 옷을 벗어 아들 엘르아살에게 성직을 대신하게 했다. 아론은 123세에 죽어 호르 산에 장사되었다(민 20:22-29; 33:38; 신 10:6; 32:50).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간 애도하였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아론] 임주는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3기 서민금융 서포터즈 모집

모집기간: 2021년 4월 5일(월) ~ 2021년 4월 11일(일)

응모대상: 서민금융진흥원 3기 서포터즈(대학생 4학년 제외)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오투기 제1회 푸드 에세이 공모전

모집기간: 2021년 04월 05일(월) ~ 2021년 04월 12일(월)

응모대상: 전국 대학생 (4학년 제외)

공모분야: 문학/글/시나리오

수면 공감 YOUTUBE 서포터즈 모집

모집기간: 2021.03.29(월) ~ 2021.04.12(월)

응모대상: 2021년 4월 12일(월)까지 유튜브 채널 개설 및 100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2021 남구 테마정원디자인 공모전

모집기간: 2021.04.16(금) ~ 2021.04.16(금)

응모대상: 대학생

공모분야: 디자인

2021 대한민국 패키지 공모전

모집기간: 2021.04.16(금) ~ 2021.04.16(금)

응모대상: 대학생

공모분야: 광고/마케팅, 디자인/캐릭터, 웹툰, 예체능/미술, 음악, 기타

갈맷길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모집기간: 2021. 3. 29. (월) ~ 4. 16. (금)

응모대상: 대학생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 3기 서민금융 서포터즈 모집 공고
• 접수기간 : ~2021. 04. 11(일)
• 응모대상 : 대학생 (4학년 제외)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오투기 제1회 푸드 에세이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 04. 12(월)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문학/글/시나리오

■ '수면공감' 유튜브 서포터즈 모집
• 접수기간 : ~2021. 04. 12(월)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2021 남구 테마정원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 04. 16(금)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디자인

■ 2021 대한민국 대학생 패키지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 04. 16(금)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디자인/캐릭터, 웹툰, 예체능/미술, 음악, 기타

■ 갈맷길 홍보대사 제1기 갈맷길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 접수기간 : ~2021. 04. 16(금)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제14기 저스티스 서포터즈 모집

모집기간: 2021. 04. 18(일) ~ 2021. 04. 18(일)

응모대상: 일반인, 대학생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디지털 샌드박스 명칭 공모

모집기간: 2021. 04. 23(금) ~ 2021. 04. 23(금)

응모대상: 제한없음

공모분야: 네이밍/슬로건

2021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이오티콘 디자인 공모전

모집기간: 2021. 04. 23(목) ~ 2021. 04. 23(목)

응모대상: 제한없음

공모분야: 디자인/캐릭터/웹툰

서울대학교병원 '영상공모전'

모집기간: 2021. 04. 30(금) ~ 2021. 04. 30(금)

응모대상: 제한없음

공모분야: 영상/UCC/사진

해운대구청사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모집기간: 2021. 04. 30(금) ~ 2021. 04. 30(금)

응모대상: 제한없음

공모분야: 기획/아이디어

2021 한국광고광고센터 우수간판 모니터링 대학생 서포터즈 3기 모집

모집기간: 2021. 05. 05(수) ~ 2021. 05. 05(수)

응모대상: 대학생

공모분야: 대외활동/서포터즈

■ 제14기 저스티스 서포터즈 모집
• 접수기간 : ~2021. 04. 18(일)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디지털 샌드박스 명칭 공모
• 접수기간 : ~2021. 04. 23(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네이밍/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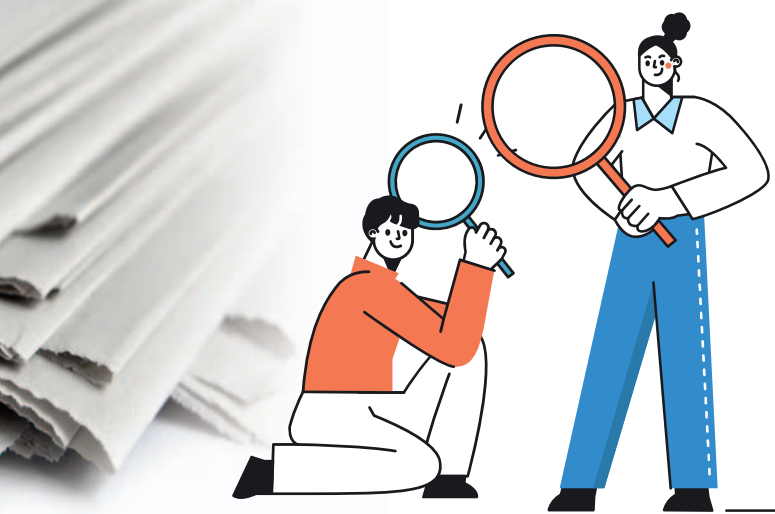
■ 2021 세계 물의 날 기념 이오티콘 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 04. 23(목)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래 멀티-시네마 월 영상작품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 04. 30(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해운대구청사 활용방안 전국 아이디어 공모
• 접수기간 : ~2021. 04. 30(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2021 한국광고광고센터 우수간판 모니터링 대학생 서포터즈 3기 모집
• 접수기간 : ~2021. 05. 05(수)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동서인들이 뽑는 우수기사!



재밌게 읽은 기사를 투표해 주세요!

4월은 벚꽃의 화사한 만개와 봄바람이 부는 따스한 달이지만 중간고사도 함께하는 계절입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잠시나마 공부에서 벗어나 웃음을 주었던 기사를 골라 주세요.

예시

1면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우수 대학 선정 또는 김경은 기자

고르신 기사 제목이나 기사 이름을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기재 후 아래의 번호로 보내거나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 편집국장 : 010-6771-8237
* 4월 29일까지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는 4월 30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_____
• 학 년 : _____
• 이 름 : _____
• 연 락 처 : _____